

지역 소식통

김제시, 찾아가는 대학입시설명회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지난 30일 김제여고를 방문해 고1~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담과 대입준비를 위한 고교활동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관내고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지평선학당 비수강생들에게도 대학입시 전담과 비교과에 대한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요령,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 방안 등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력을 키우고 대입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학년별 맞춤형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장학재단 설립초기 63%에 불과하던 관내고 진학률을 72%까지 끌어올리며, 관내고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 지원

김제시 신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 공공위원장 임정업)는 지난 29일 신동동 관내 저소득계층 2세대에 대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한 이번 사업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 셋을 혼자 양육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 지원해 희망을 전달했다. 최호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이웃들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임정업 신동동장은 "소의계층에 마음을 나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선언

완주 농공단지 현장 간담회... 민선 7기 반환점 맞아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 표명

완주군이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등 15만 자족도시 실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선 7기 후반기 2년 출발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 조성 중인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고위직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 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종연 건설안전국장을 포함한 국장단 3명과 완주농공단지개발(주) 윤재삼 대표 등 농공단지 관련 인사 5명이 참석, 사업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청취에 적극 나섰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농공단지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인접해 있고 삼봉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다 각종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분양되고 있다"며 "이미 분양된 단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분양되는 단지는 완주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완주농공단지의 적기 완공과 조기 분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후반기 2년의 출발에 앞서 국내외 중소기업을 받아들일 농공단지 조성 현장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남은 기간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박 군수의 강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완주군은 민선 7기 2주년을 기념할 현장 간담회 장소를 2~3곳 물색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시대에도 분양문의가 쇄도하는 등 지역주민에 희망을 주고 향후 군정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농공단지 조성 현장으로 나뉘었다는 후문이다.

민관 합동 제3색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인근에 추진 중인 '완주 테크노밸리 2 단계 사업'과 함께 민선 7기의 기업유치 의지를 상징하는 '2대 대형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완주군은 두 산단의 유치기업 간 연계를 통해 산업시설을 집적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15만 자족도시 완주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58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11월말까지 29만7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을 25%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분양공고를 낸 산업시설용지(23만8천㎡)의 경우 이미 34%가량 분양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완주군은 올 연말까지 분양신청이 60%에 육박하고, 내년 말까지 100% 분양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완주군은 특히 이 사업 추진으로 생산유발 효과 526억 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유발 효과 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 4,900명 등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누리는 등 완주발전의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군수는 민선 7기 후반기 2년의 첫날인 1일 청원월례초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확대간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출몰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하반기 군정의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2020년 전국 농어업회의소 시범지역 합동 워크숍이 최근 1박 2일로 완주군 농어업회관과 창포마을에서 열렸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워크숍 개최

참석자 50여명,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 전략 등 토론

전국 농어업회의소 임원들이 완주에 모였다.

완주군은 2020년 전국 농어업회의소 시범지역 합동 워크숍이 최근 1박 2일로 완주군 농어업회관과 창포마을에서 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농어업회의소와 국민농업포럼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완주군농어업회의소(회장 송병주)가 후원했으며, 전국 35개 농어업회의소 임원진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수정책보좌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무산되자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전략 수립을 꾀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 모색과 지역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은 '분권과 협치의 시계,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각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 한 후 본격적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전국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농정 틀 전환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협치와 참여 행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에 목적이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완성돼 상향식 협치능정으로 이어질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구이·비봉면, 56억 국비지원 받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공모사업 선정... 4년간 80억 투입 예정

완주군 구이면, 비봉면이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된다.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구이·비봉면 2개 자구가 선정돼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모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이루어진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부

터 준공까지 사업전반에 걸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완주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주민위원회와 함께 생활500시설 확충을 통한 거점지 기능을 강화해 주민 복지향상과 주민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구이, 비봉면은 2021년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80억원(국비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거점지인 면소재지에 생활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세대와 계층 간 소통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 조직을 육성해 주민 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교육 임시 개통식

김제시시가 지난 30일 시민 안전을 위해 재가설된 김제교육의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은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해, 운주현 시장의장 및 시의원과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제교육은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아

운행자들의 안전 확보와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며, 높이3M, 10톤 이상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고, 2018년 4월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재가설공사를 착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methods. Title: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List of 4 point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an image of a hand holding a globe and a background image of a green landscape.